

##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 완료!

- 국내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실증할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금)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이하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하였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항해, 디지털 기반 기관 모니터링, 통신 및 보안기술 등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항로에서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명명식에 참석하여 "오늘 명명식을 가진 실증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실증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참고

관련 선박 사진

